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釋  
무산스님

해장 선사 '蓮覺香'

선사의 법명은 해장(惠藏), 법자는 무진(無盡), 법호는 연파(蓮坡)·아암(阿菴), 속명은 김팔득(金八得)이다.

선사는 새금현 화산방(지금의 해남군 화산면)의 외진 고을에서 영조 48년(1772)에 태어났다. 너무도 집이 가난하여 어린시절에 대둔사 월송재판 화상에게 삭발염의 하였으며, 춘계전국 대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춘계 대사는 외전(外典·주역·유서)에 능통하였다. 선사는 출중한 지혜로 이를 배운 지 몇 년만에 명성을 총림에 드날렸다. 또한 그의 탁월한 학문은 속유(俗儒)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경전은 여러 스님들에게서 배웠는데, 경을 배울 때 머리를 숙이고 설법을 들었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오~호"라고 중얼거렸다. 이는 경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을 비웃는 소리였다. 그러나 오직 연담유일 선사의 수차(手筭) : 경

한 권 펼쳐보니, 맑아진 마음에 가시 피어난 연꽃 한 송이로다.

불조항(佛祖香)

漸作表翁(점작중옹)  
依舊癡童(의구치동)  
佛祖意(불조의)  
半夜癡(반야제동)  
淸寒家計(청한가계)  
淡泊宗風(담박종풍)  
看影即眞(간영즉진)  
凡即佛(범즉불)  
色即空(색즉공)

점점 늙어가는 데도, 예전처럼 여전히 어리석은 어린애일 뿐이네.

부처님의 뜻, 반야(半夜)에 무지개 오른다.

청빈한 가계(家計)요, 담박(淡泊)한 종풍이다.

한영(幻影)이 곧 진제(眞諦)요, 법인

해맑게 피어난 연꽃보고 깨달아

초의선사에 '다담선의 다도' 전해

전을 손으로 엮음의 구수(口授 : 법문)는 비웃지 않았다.

선사는 운담정일·정암즉원 선사를 두루 섬겼으며, 27세에 소요 조사의 선지(禪旨)를 받들어, 정암 선사의 법통을 이었다. 선사는 소요지종으로부터 화악문신(華岳文信)의 적전(嫡傳)이 되었으며, 두륜대회(頭輪大會)의 맹주가 되었다. 그때 모인 스님들이 1천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선사는 스승 정암장로 회상(會上)에서 수행하던 중 26세 때 초가를 연못가를 거닐다가 해맑게 피어난 연꽃 한송이를 보고서 크게 깨달았다.

이 곧 부처요, 색계가 곧 진공(眞空)이구나.

선사의 깨달음은 해마다 못하여 하얀 연꽃 같다. 이 같은 선사의 해맑은 선지(禪旨)는 회노애락에서 시공(時空)의 경계 속에 망상의 먹구름으로 뒤덮여 집착과 탐심으로 삼독(三毒)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에게 하얀 연꽃처럼 해안이 되어주고 있다.

선사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이 몸 밖에 있으면, 방 밖의 등불이 실내를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등불이란 색(色)이 나타나 이와 같이 본성을 보는 것은 마음요 눈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 현상은 눈에서 나왔지만 도리어 눈으로 들어가니 마땅히 견(見)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선사는 우리 다도사(茶道史)에 있어 큰 획을 남기신 분이다. 스승 연담으로부터 다담선(茶湛禪)의 법을 받았으며, 다담선의 다도를 초의에게 전하였다. 또한 정약옹 선생에게 차를 가르쳤으며 다산(茶山)이란 호를 지어주었다.

선사께서는 순조 11년(1811) 40세로 열반하였다.

연각향(蓮覺香)

定中見解最高圓(정중견해최고원)  
更把乾坤比一拳(경과건곤비일권)  
七冊金文開次第(칠책금문개차제)  
這般心事淨如蓮(자반심사정여연)

선정에서 얻은 견해 원만한 지혜인데, 또 다시 하늘, 땅을 한 주먹에 비하노라.

부처님의 팔만경전 일곱 책을 한 권

가까이서 뵈 큰스님

법 흥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아는대로 실천하도록 노력”

한국불교사에서 혁혁한 빛을 발하는 고승 대덕을 많이 배출한 순천 송광사. 조계총림 송광사(松廣寺)로 걸어 들어가는 길 양쪽에는 사찰 이름과 어울리게 유난히 키가 훗칠한 소나무들이 많아 맑고 향기로운 바람을 연신 보내준다.

본 절로 들어가는 내(內)를 건너기 직전에 불서를 파는 '불일서점'이 있다. 이 서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법흥(法興) 스님이다. 스님은 이곳을 하루에 한번씩은 꼭 들리시며 책을 구입하신다.

스님은 경향 각지에서 법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는데 법문비를 받거나 하면 모두 책 사는데 쓰신다. 특히 당신이 보시고 감명깊었거나 내용이 좋다고 느끼신 책은 예외없이 대량 구입하여서 가까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법흥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화엄전을 나오는 스님이나 신도들의 손에는 예외없이 불서가 하나 이상 꼭 들려 있다.

법흥 스님은 그동안, 송광사의 수행가풍과 면모는 물론 연혁, 문화재까지 세밀하게 담아내고 조계종의 근본수행법인 참선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선의 세계>만 해도 1만 7천부를 찍어 나누어 주었다. 계속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지체를 강조하기 위해 <선(계율 강의)>도 4천여부를 보시하셨다.

<법화경> 등 경전들과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등 법정 스님의 명저들, 원로 스님들의 법문집 등 스님이 지금까지 법보시한 책은 수 만권에 이른다.

또 <금강경>의 사구계나 법구경, 조사 어록 등 귀감이 돌만한 불교 경구들을 평소 애정들여 붓글씨로 써 놓았다가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자상한 설명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

틈만나면 책과 함께

경전 읽기를 생활화하시는 스님은 신도들은 물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라고 권하신다. 스님 방의 앞문방이 책상에는 늘 책이 펼쳐져 있다. 스님은 틈만 나면 공부를 하신다. 요새는 구산 스님의 법문집을 다시 읽고 계시다고 한다.

"백년을 두고 향내나는 사람이 될 지언



송광사에서 30여년 주석하신 법흥스님은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로 아무리 오래전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송광사의 산역사'라 불린다.

“ 게으름 피우는 사람  
사정없이 불호령  
“부지런해야 한다”

정 만년을 두고 구린내 나는 사람은 되지 말라.”

스님은 올 송광사 여름수련대회에서 수련생들에게 <법구경>을 강의하며 유가에서 나온 이말을 강조했다. 스님의 경전 강의는 단순한 경전을 풀이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해를 돕고 발심을 시키기 위해 동서 고금을 넘나들며 다양한 예시를 들고 보충설명을 하기에 스님의 강의는 명강의로 소문이 높다. 서양철학, 유가의 경전, 일본 선사들의 계승, 중국 선사들의 저서는 물론 최근 출판된 수필집도 인용하시는데 거침이 없고 막힘없이 온 열정을 담아 강의하신다.

스님은 우리 사회가 자주 혼란스러워지고 인간이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가 모든 것을 물질에 우위를 두는 서양사고적 가치관에 기인한다고 진단하신다. 즉 물질의 힘과 정신적 도덕적 부조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불교에 있으며 불자들이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교를 왜 믿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실천해 백년을 두고 향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것이다. 적어도 사찰 수련회에 온 사람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이 사회를 맑히는 향내를 주는 사람인지 구린내를 풍기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요즘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밝은 마음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 참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도 마음을 깨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마음, 광명정대한 마음이 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닦으세요. 고(苦)를 소멸하고 자성을 닦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지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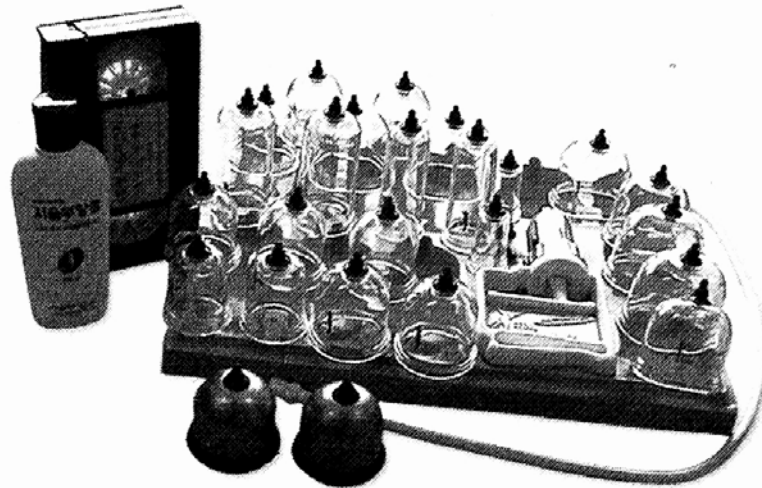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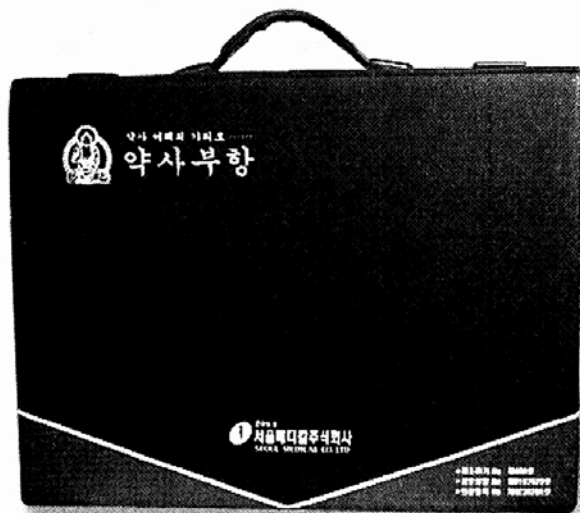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정진을 하라는 팔정도가 그것이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발심했는지 명심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43년전인 29세 때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당시로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한 스님은 역시 늦깎이로 혹독하게 수행해 깨달음을 얻고, 출가한 지 12년만에 송광사 방장 자리에 오른 효봉스님을 수행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 평소 법문하실 때도 자주 수행자가 사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 예로 든다.

"여러 곳에 다니며 많은 스님을 만나보았지만 효봉 스님 만한 대근기가 없었습니다. 효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8년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의 고행으로 도를 깨쳐셨어요. 안거에 들어갈 때 미리 '저는 늦게 입산하다보니 한가하게 정진할 수 없습니다. 입선관 방선 결계 해제를 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게 해달라'고 대중들의 양해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한 결연한 의지와 각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